북한 불교는 화쟁을 어떻게 이해할까

김유리 씨, 불교학연구회서 '북한 화쟁사상' 발표

남북한 화쟁 연구사 분석 '눈길'
北 "화쟁, 상대주의적 궤변 불과"
변증법적 특유 개념 적용해 왜곡

이질화된 양측 학설 조화 중요해
"문화재 복원·동질성 회복 나서야"

종교 신앙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이 불교사상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분석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끈다.

동국대 박사과정에 있는 김유리 씨는 9월 9일 '대승불교 교학과 현대적 응용' 주제로 열린 불교학연구회 가을 논문발표회에서 '북한의 화쟁 사상 이해' 논문을 발표했다. 김 씨는 논문에서 남한과 북한의 화쟁 연구 현황과 내용들을 비교·분석했다.

김 씨에 따르면 남한에서 화쟁 연구는 화쟁의 개념과 논리를 도출시키는 사상적 연구와 사회적 실천 방안을 살피는 응용적 연구로 나눠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사상적 체계가 동원되는 북한에서의 화쟁 연구는 변증법적 논리에 의해 해석된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실제, 북한의 경우 불교를 신앙과 교학의 측면보다 문화유산으로 접근하고 있다. 사찰 복원의 경우도 외부 선전과 관광에 목적은 둔 것이지 신앙적 측면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이유로 북한에서 불교사상의 연구는 활발하지 않고, 〈조선철학사개요(1986)〉·〈조선철학전사(2010)〉·〈철학사전〉 등에 단편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김 씨는 최근 북한이 원효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원효에 대해 "가치있는 논리사상을 내놓아 논리학 발전에 일정한 기여했다", "우리나라 불교계 통합에 이론적 기초를 닦았다" 등의 우호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다. 김 씨는 북한이 마르크스주의에 기반한 변증법적 논리로 화쟁을 해석해, 원효 사상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 씨는 "북한은 원효 사상을 변증법적 개념으로 왜곡시켰다. 게다가 조화를 강조하고 있는 화쟁 사상을 변증법적 발전에 비춰 상대주의적 궤변이라고 주장한다"면서 "일찍이 마르크스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사회주의 체제를 설계했던 북한에서 화쟁과 불교에 대한 이해는 매우 협소한 공간만을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질화된 양측의 문화와 정체성 등에 대한 조화는 정치적 통일만큼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남과 북이 불교철학의 개념을 함께 정의하고 범주를 설정하기 위해 화쟁의 가르침에 입각한 노력을 해야 한다. 북한은 원효의 화쟁 사상만큼은 변증법적 체계를 갖춘 사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소통을 모색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문화유산 공동 복원·동질성 회복 운동 추진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날 발표회에서는 박사 과정 연구자들의 논문이 소개됐다. 박현주(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조선후기 불교의 심성 논의에 나타난 종밀의 영향'을, 서정원(동국대 박사과정) 씨는 '〈묘승정경〉의 직자에 대한 소고'를, 이길산(서울대 박사과정) 씨는 '〈섭대승론〉 염오의 존재증명 제1증에 관하여 - 불공부병 개념을 중심으로'를 각각 주제 발표했다.

논평자로는 손성필(한국고전번역원), 정희경(동국대), 김지연(금강대), 조기룡(동국대), 박기열(금강대), 안환기(서울대) 등이 참여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구미 대둔사 대웅전 보물 지정 예고

문화재청, 9월 1일 공고



구미 대둔사 대웅전이 보물로 지정된다.〈사진〉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경상북도 구미시에 있는 '구미 대둔사 대웅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9월 1일 밝혔다.

구미 대둔사는 신라 눌지왕 30년(446년) 아도화상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고려 고종 18년(1231년) 몽골족의 침략으로 불타버린 것을 충렬왕의 아들 왕소군이 출가해 재건했다. 그 후 조선 선조 39년(1606년) 사명대사 유정이 중건해 승군을 주둔시켰다.

현재의 사역은 원래 대둔사의 암자인 청련암 자리이며, 현재 자리에서 서남쪽 약 300m 지점에 대둔사 옛터가 남아 있다. 현재 대웅전은 진입로에 요사채, 입구 오른쪽으로 명부전, 왼쪽으로는 석축을 두고 있으며 명부전 북쪽으로 3단의 응진전 등이 남아 있다.

1987년 대웅전 수리 중 발견된 상량문에 의하면 광해군 6년(1614년)부터 순조 4년(1804년)까지 다섯 차례 수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붕에 '건륭31년 병술(1766)'이라고 기록한 망와(장식기와)가 다수 남아 있어 건물의 역사를 입증하고 있다.

대웅전은 조선 시대의 전형적인 다포(多包)계 건물로 지붕을 받치는 공포는 강직하면서도 장식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17~18세기 건물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물천장 등의 구조와 내부 닫집의 섬세한 조각형태 그리고 건립 당시로 추정되는 단청문양이 잘 남아 있다.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대웅전은 형태, 구조, 장식 측면에서 볼 때,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역사적, 건축적, 예술적 가치가 충분하다"며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문화재보존과학회 새 회장에 한경순 교수

9월 2일 선출… 임기 2년



문화재 보존, 수리 연구을 진행해 온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의 새 회장에 한경순 건국대 교수〈사진〉가 선출됐다.

(사)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9월 2일 제14대 학회장엔 한경순 교수를 선출했다. 한 교수는 조계종 성보환경보전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조달청 예산평가위원회 위원,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문화예술분과 위원장 등을 맡고 있다.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는 1991년 설립됐으며, 국내 문화재 보존분야의 유일한 학회다. 학회는 그간 문화재 보존처리 및 복원 기술 연구 및 자문, 문화재 보존 학술사업, 학술보고서 및 연구서 발간, 문화재 보존 연구인력 양성, 교육 및 학술대회 개최 등을 진행해왔다.

한 교수는 "2년의 임기동안 △현 학회제도 개선 △학회지 SCOPUS 등재 △문화재보존기술 교육역량강화 △학회 국제적 위상 향상 등을 목표로 학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초기불교로 '반야심경'을 읽다

이중표 교수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 발간



반야심경에 함축된 의미들
초기경전서 확연히 확인돼
경전 형성과정 이해도 높여

〈반야심경〉은 반야부경전의 핵심이 녹아있는 경전으로 불자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경전이다. 그래서 관련 해설서들도 수없이 나오기도 했다.

이중표 전남대 철학과 교수〈사진〉가 최근 발간한 〈반야심경〉 해설서는 조금 특별하다. 그 독법의 초점이 불교 초기경전인 〈니까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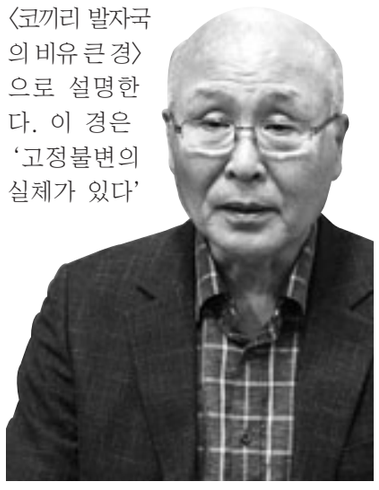
이 교수의 저작 〈니까야로 읽는 반야심경〉은 말 그대로 〈반야심경〉을 〈니까야〉에 근거해 해석한다.

기실 반야부경전의 특징은 불교의 본질이 '반야바라밀다(般若波羅蜜多)'에 있다고 설하는 데 있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이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 즉 깨달음의 지혜를 가리킨다.

〈반야심경〉은 부처님의 지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공(空)'을 이해하고 분별과 개념의 세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설한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실체가 없는 '무아'를 말한다.

이 교수는 〈반야심경〉의 이러한 가르침의 근원을 〈맛지마 니까야〉에 있는 〈근본법문경〉에서 찾는다. 이 경은 개념적으로 인식하지 말고 체험적으로 인식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있다.

개념적 인식과 체험적 인식은 다시 〈맛지마 니까야〉의 〈코끼리 발자국의 비유 큰 경〉으로 설명한다. 이 경은 '고정불변의 실체가 있다'



고 개념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이어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인연에 따라 모였다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실체 없는 존재임을 〈쌍윳다 니까야〉와 〈디가 니까야〉를 토대로 설명한다. 이 속에서 '공(空)'과 '연기(緣起)' 사상의 태동을 들여다볼 수 있다.

또한, 8종의 〈반야심경〉 한역본을 비교분석해 〈반야심경〉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산스크리트어에서 한문으로 번역됐는지 살펴볼 수 있다.

이 교수는 일반불자들이 〈반야심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경전에 사용된 언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색즉시공(色卽是空)'에서 '색'은 단순히 '물질'이 아니고 '공'은 '비어있음'으로 이해하고 해석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반야심경〉에 사용된 언어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이 가르치신 초기 경전은 〈니까야〉와 〈아함경〉에 사용된 언어들"이라며 "이 책은 〈니까야〉와 〈아함경〉을 통해 대승경전인 〈반야심경〉을 해석한 것이다. 초기경전을 통해 〈반야심경〉을 살펴보면 결코 난해한 경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금강대 '불교학리뷰' 등재지 선정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소장 김성철)이 발간하는 학술지 〈불교학리뷰〉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

〈불교학리뷰〉의 처음 시작은 새로 출판된 불교학 저술이나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흐름을 조망하는 비평지였다. 이후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사·연구 노트·외국 논문의 번역·서평 등 국내 학술지에서 찾아 볼 수 없었던 형식을 갖추어 큰 의미를 더 했다.

김성철 불교문화연구소장은 "2006년 창간한 후 11년 만에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학술연구재단 등재지로 선정됐다"며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불교학리뷰〉를 만들어 한국과 세계의 불교학을 선도할 수 있는 학술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양평 용문사 문화유산 특징은

동북아불교미술硏, 9월 16일 학술대회

양평을 대표하는 사찰인 용문사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린다.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소장 석문)과 양평 용문사(주지 보인)는 9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양평 용문사의 문화유산'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김규순 대한풍수연구원장의 '용문사, 사찰명과 풍수지형과의 연관성' △최선일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의 '양평 용문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연구' △김정원의 '양평 용문사 정지국사탑 연구' △홍은미 옥천사 성보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의 '양평 용문사 범종과 주종장 김치운의 활동 연구'가 발표된다.

대회를 주관하는 동북아불교미술연구소는 "용문사 역사 바로알기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용문사의 입지적 특징과 개별 성보문화재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신성민 기자

제97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9월 29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화, 금)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무료공개 강좌 : 매월 셋째주 일요일 낮 12시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밀교의 의성신·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입 문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6개월(주1회 특별수련)
■ 고 급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제3의 눈·뇌의핵심〈송과체〉·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피부호흡)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면접 상담 후 결정) ■ 등록번호 : 138-50-00260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 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